

## 한국 전력 공사

### 월성 원자력 3호기 상업운전 개시

운전중 연료교체 가능한 중수로형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7월 14일 월성원자력 본부에서 국내 세 번째 가압중수로형인 월성원자력 3호기 상업운전 개시 기념식을 장영식 사장을 비롯한 150여명의 대내외 관련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70만kW급 용량의 월성 3호기는 93년 8월에 착공하여 지난해 12월 원자로에 연료를 장전하고 그동안 각종 출력시험과 최종성능 시험을 통해 발전소 성능의 신뢰성을 확인하고 이날부터 공식적인 상업운전을 개시했다.

중수로형 원전은 경수로형 원전과 달리 운전중 정지없이 연료교체가 가능해 높은 가동률을 장점으로 하고 있는데, 월성 3호기와 동일형인 월성 1호기의 경우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이용률 세계1위를 달성한 바 있다.

한편 월성 3호기의 상업운전 개시로 국내 원전은 13기, 1천1백2만kW에 달하게 됐다



며, 연간 87만톤의 LNG, 7백70만배럴의 석유, 1백70만톤의 유연탄 수입대체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한국 원전연료(주)

### 원전연료 성형가공 시설 준공식

에너지 자립기반 구축 전기 마련



한국원전연료는 지난 8월 12일 사내 대회 의실에서 내빈과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원전연료 성형가공 시설 준공식을 가졌다.

이날 원전연료 성형가공 시설의 준공에 따라 한국원전연료는 원전연료 생산능력이 연간 기존의 경수로 200tonU에서 400tonU으로, 또한 중수로 400tonU으로 확충됨에 따라 향후 20년간 국내 원자력발전소에 필요한 원전연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되어 국가 에너지 자립기반 구축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또한 원전연료 생산이 경제규모에 도달함으로써 국산 원전연료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으며, 연간 약 1억달러의 막

대한 수입대체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준공한 가공시설은 최첨단 설비와 기기를 갖추으로써 국내에서 가동중인 모든 경수로 및 중수로 연료를 제조할 수 있게 되며, 또한 원전연료는 고품질의 원전연료를 차질없이 생산 공급함으로써 국가가 부여한 원자력 에너지 자립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앞으로 외국의 연료회사와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 한국원자력연구소

#### 개발도상국 대상 국제교육과정 시행

IAEA 지역간 훈련 활발히 전개

한국원자력연구소 원자력연수원은 개발도상국가들을 대상으로 원자력요원 인력양성을 위한 국제교육과정을 활발히 전개, 국제원자력교육기관으로서 자리매김 하고 있다.

한편 원자력연수원에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 회원국인 중국, 인도, 태국, 필리핀,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등을 대상으로 원자력안전, 원자력발전, 방사성폐기물 처리기술 등 원자력 전반에 걸쳐 IAEA 지역간 훈련과정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97년의 경우 "원전 사업계획수립 및 추진", "원자력발전소 계측제어 보수유지" 등 총 3개 과정에 63명의 외국인이 한국원자력연구소의 국제훈련과정에 참여하였으며, 그간 원자력연수원이 개최한 IAEA 지역간 훈련과정의 수행 성과를 높이 평가하여 아·태지역의 '우수 국제연수원'으로 인정하였다.

98년 상반기에는 10개국 25명의 훈련생을 대상으로 "원전 및 기타 에너지원에 대한 비교평가"에 관한 IAEA 지역간 훈련과정을 개최하였다.

### 한 전 기 공(주)

#### 제3회 MAPS 워크샵 개최

39개 사업소 및 본사 88명 참석

한전기공은 제3회 MAPS(정비지원프로그램)워크샵을 지난 7월 15일 39개 사업소 및 본사 등 총 88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안보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샵에서는 '98 MAPS 2.0 사용법 및 운영환경에 대한 워크샵 강좌, 사업소 MAPS 데이터 입력현황 분석, 주제발표 및 주제별 토론순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98 MAPS 운영 최우수사업소에는 부천(수화력), 울진1(원자력)사업소가 선정되어 사장상이 수여되었고, 각 사업소에는 취득한 득점에 따라 평가등급이 처음으로 부여되었다.



## 대한광업진흥공사

### 창립 제31주년 기념 행사 거행 해외자원개발 사업 적극 추진

대한광업진흥공사는 지난 6월 3일 대회의실에서 창립 제31주년 기념행사를 서생현 사장, 박영한 감사, 손성수 기획관리본부장 등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졌다.

서생현 사장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앞으로 우리공사는 국내자원의 효율적인 개발과 함께 해외자원 개발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앞으로 2007년까지 매년 1개 프로젝트 이상 총 13개 사업에 직접 투자할 계획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부임후 첫 공사 창립기념일을 맞아 공사의 사업구조를 오늘의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고, 경영관리를 보다 효율성있게 혁신하며,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는 좋은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직원들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서생현 사장은 기념사에 앞서 장기

근속 유공사원을 비롯한 공사발전 유공사원, 모범사원, 노사화합 유공사원 등에 대한 포상을 수여하고 치하했다.

## 한국석유개발공사

### 대륙봉 제6-1광구 천연가스층 발견 국내 최대 매장량 400만톤 규모

한국석유개발공사는 울산 남동쪽50km지점의 대륙봉 6-1광구 고래V구조에서 양질의 천연가스 발견에 성공했다.

유개공은 이번 고래V구조에 대해 지난 6월 9일 시추를 시작하여 7월 7일 지하 2,637m까지 시추를 완료하고, 8일부터 27일까지 산출시험(DST)을 실시한 결과, 일일 천연가스 7,500만큐빅피트(ft<sup>3</sup>)와 초경질유(콘덴세이트)1,546배럴이 산출되는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다.

이번에 발견된 가스층은 심도 지하 2,291~2,470m사이에 4개 구간으로서 암층의 가스함유율과 공극율이 높고 가스층의 두께가 약106m에 달하고 예상가체 매장량은 3백40만톤~4백만톤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출시험결과 분출압이 2,000(PSI)으로서 이전 고래I구조의 두배에 달하고, 일일 산출량 또한 7천5백만 입방피트로서 3백만 입방피트보다 25배에 해당하는 좋은 결과를 얻었다.

특히 이번 가스층은 약 1000만년전의 지층으로 기존에 가스가 발견되던 1600만년전 지층과는 다른 새로운 지층에서 가스 발견에



성공한 것이어서 더 큰 의미가 있다.

또한 이번엔 산출된 초경질류(콘덴세이트)의 양도 일일 1,546배럴로서 고래I구조의 30배에 해당하는 양일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확인된 매장량 1,700~2,000억 입방피트 이외에 동 구조내에서 추가 확보가 기대되는 매장량이 1,000~1,500억 입방피트 정도로 상업적 개발 가능성을 밝게 해주고 있다.

고래V구조에서 현재 확인된 매장량으로도 일일 생산규모가 3,000~4,000만 입방피트(LNG 기준 600~800톤)씩 15년간 생산할 수 있는 양이고, 예상되는 가스판매 수입은 약 8억 불 정도로서 생산시설 투자비 2억불을 감안해도 충분히 경제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한국석유개발공사는 현재 확인된 매장량에 대한 정밀한 경제성 분석을 시행하는 한편, 보다 정확한 가채매장량 확인과 추가 매장량 확보를 위해 내년 상반기에 3개공의 평가정을 시추한 후, 결과에 따라 개발에 착수, 빠르면 2002년부터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 포스코개발(주)

#### 포항제철소 도면 DB시스템 가동 엔지니어링 생산성향상 크게 기여

포스코개발은 포항제철소의 도면 데이터베이스(DB)를 온라인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최근 구축하고 가동에 들어갔다. 포항제철소 도면 DB 이용 시스템은 포항제철소의 현장과 도면실에서 사용하는 도면들을 포스코개발 포항 본사에 위치한 기술정보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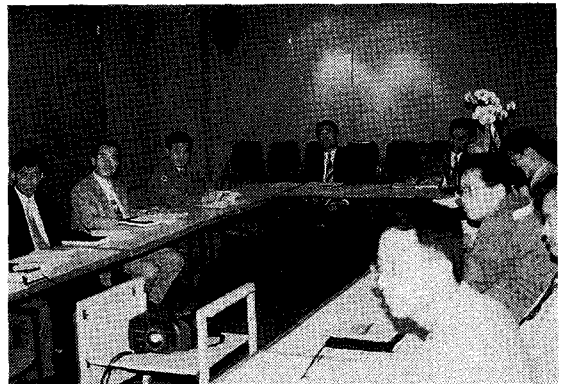
에서 네트워크를 이용해 직접 검색하고 조회·출력해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포털 서버 상에서 프로젝트별 이용인가, 도면이용 허가범위 등록, 사용자 현황 및 출력통계 관리 기능 등을 갖췄으며, 포스코개발 클라이언트 상에서는 인가대상 프로젝트·사용자 등록·도면조회·출력·복사·폐기관리 및 통제번호 부여 기능 등을 갖춰 보안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구성됐다.

이번 시스템 가동으로 포스코개발은 자체 시스템 구축비용과 도면전자 파일 제작비용, 시스템 온라인 이용에 따른 인력절감 등 27억여원의 경비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포철과 출자사간의 통합기술 정보 시스템인 'POTIS'와 더불어 기술 정보 활용성을 높이고, 도면 DB를 재활용함으로써 엔지니어링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포스코개발은 포항제철소 도면 DB 이용시스템 가동에 이어 2단계로 올해말까지 광양제철소 도면관리 시스템도 추가로 연결해 이용 효율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 포항종합제철(주)

제품출하 누계 1억톤 돌파 대기록  
승용차 1억1천만대 생산 분량

포항종합제철 광양제철소는 지난 8월 4일 제품출하 누계 1억톤을 돌파했다. 이번 쾌거는 87년 1월 21일 열연제품을 첫 출하한 이후 11년 7개월만에 달성한 대기록이다.

광양제철소는 87년이후 지금까지 열연 5천4백53만2천톤, 냉연 3천8백35만2천톤, 미니밀 1백22만7천톤, 슬래브 5백78만3천톤등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 3천8백만톤을 수출하고 6천2백만톤을 국내수요가에 공급해 왔다.

이들 제품을 수송하기 위해 선박 1만8천5백척, 차량 1백22만대, 기차 5만4천량이 동원됐다. 제품 1억톤은 두께0.7mm, 폭 1천2백34mm의 냉연코일로 환산했을 때 지구와 달 사이를 19회 왕복할 수 있으며, 쓰나타 승용차 1억1천만대를 만들 수 있는 양으로 판매금액만도 약 31조2천9백억원에 달한다.

한편 광양제철소는 87년 2월 1열연공장을 준공한 후 지속적인 설비확장으로 현재 연간



1천3백80만톤의 제품 생산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 대림엔지니어링(주)

캄보디아 화력발전소 건설공사 수주  
6천만달러규모 터키방식 계약

대림엔지니어링은 지난 7월 20일 캄보디아 전력회사(CPC)로부터 6,000만달러 규모의 복합화력발전소 건설공사를 터키베이스로 수주했다.

대림엔지니어링은 지난 3월 CPC로부터 발주의향서를 받는데 이어 5월 세계은행산하의 국제금융공사가 금융주간사로 자금조달을 승인, 미국등 해외선진업체를 제치고 1년여의 경쟁 끝에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대림엔지니어링은 국내 엔지니어링업계 최초로 인도차이나에서 터키발전소 프로젝트를 수주,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한 발전소 수주에 유리한 입지를 확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캄보디아 최대 발전소 건설사업인 이 사업은 총 60메가와트 전력을 생산하는 캄보디아 최초의 복합화력발전소를 프놈펜시내에 건설하는 것으로 설계·기자재구매·시공·시운전을 포함한 터키방식으로 건설된다.

대림엔지니어링은 80년대초부터 석유화학 플랜트 부문의 해외진출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으며, 최근들어 발전소 분야에서도 해외진출을 확대하고 있다.

CPC는 미국의 민자발전 유틸리티회사인 비콘 힐과 모스버커 전력회사가 각각 50%씩 출자해 설립한 현지 합작사이다.

**S K (주)**

**목포저유소 신설 및 원주저유소 확장**  
저유물량 규모 총 520만배럴 보유

SK(주)는 전남, 강원 서부지역의 원활한 유류공급을 위해 총 314억원을 투자하여 목포저유소 신설 및 원주저유소 확장 등 저유시설을 대폭 확장했다.

SK는 지난 96년 2월부터 184억원을 들여 전남 목포시 대불공단내 1만평 부지에 건설한 목포저유소는 휘발유 2만배럴, 저유황 경유 6만 배럴, 등유 3만배럴 등 총 13만배럴의 저장능력을 갖춘 저장시설로, 9기의 적재대를 갖추고 있다.

또한 선박계류 및 제품하역을 위한 6천톤 규모의 돌핀식 공용부두와 시간당 262kl를 출하하는 해상 출하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목포저유소 완공으로 SK는 전남지역에 광주저유소(25만배럴), 광양저유소(11만배럴), 순천저유소(1만배럴), 강진저유소(8천배럴)등 총 50만8천배럴의 저장능력을 보유하게 됐다.

또한 SK는 지난 97년 4월부터 130억원을 들여 원주시 호저면에 위치한 5만4천배럴의 저유능력을 가진 원주저유소 확장공사를 완료하였다.

이번 7만5천배럴 규모의 저장시설 확장으로 저유용량이 휘발유 2만배럴, 저유황 경유 6만3천배럴, 등유 3만3천배럴 등 총 12만9천배럴로 늘어남으로써 강원 영서, 경기 및 충북 일원에 원활한 유류공급 체계를 갖추 수 있게 되었다.

SK는 이번 목포저유소 신설 및 원주 저유소 확장을 완료함으로써 전국 23개 지역에 위치한 저유소(저유물량 : 520만배럴)을 통하여 신속하고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인 물류시설의 확충과 운영시스템의 개선을 통하여 경쟁력 우위를 유지할 계획이다.

**포스에너지(주)**

**해수 송수량 누계 100억톤 달성**  
철강 경쟁력 향상 지속적 지원

포스에너지 포항사업소는 지난 8월 15일 오전 8시를 기해 해수 송수량 누계 1백억톤의 위업을 달성했다.

이번 기록은 1972년 10월 1기 설비가 준공돼 해수송수를 시작한 이래 만 25년 9개월여만에 이룩한 것으로, 영천댐과 안계댐을 1백회 가량 채울 수 있는 거대한 양이다.

이번 대기록 달성은 해수설비 관련 직원 전원이 합심단결해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이 설비관리에 만전을 다한 결과로서 자가 발전소와 고로설비의 냉각수로 사용되는 해수의 안정적인 공급은 제철소 안정조업과 세계 제일의 제철소 실현에 밑거름이 됐다.

포스에너지는 이종혁 포항사업소장과 임군택 포철 에너지부장을 비롯한 관련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8월 17일 기념행사를 갖고, 이번 기록달성을 계기로 제철소의 안정조업과 철강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 한국가스안전공사

### 차량이동 가스안전 홍보 전개 안전의식 고취 가스사고 예방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움직이는 가스안전 홍보시대의 개막을 선언하고 지난 7월 29일 본 사운동장에서 정부 관계자 및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전광판 이동홍보차량 시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시연회에서 소개된 전광판 이동홍보차량(Mobile Vision)은 가스사용자들을 직접 찾아가 가스안전사용 요령 등에 대한 영상물을 방영함으로써 사용자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궁극적으로는 가스사고 예방의 전기를 마련한다는 목적하에 도입하게 된 것이다.

이에따라 가스안전공사는 국내기업 가운데 최초로 전광판 이동 홍보차량을 보유, 자체 홍보사업에 나설 수 있게 됐으며, 이번에 도입된 2대의 이동홍보차량은 전국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및 강원·춘천권의 제1권역과 영남과 호남지역의 제2권역으로 나눠 매일 순회 운영함에 따라 향후 가스사고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현대정유(주)

### 2백20여억원 투자 목포저유소 가동 석유시장 개방 대외경쟁력 향상

현대정유는 석유시장의 개방화 시대에 안정적인 석유제품의 공급을 위해 총 투자비 2백20여억원을 투자, 전남 영암군 삼호면 1만평 대지위에 총 19만배럴 규모의 목포저유소를 완공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지난 7월 3일 완공된 목포저유소는 휘발유, 등유, 경유, 벙커-C유 등 석유제품을 저장할 수 있는 석유제품 저유시설과 시간당 3백~5백kl를 출하할 수 있는 해상출하대 3기 및 육상출하대 9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6천톤급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규모이다.

이번 목포 저유소가 완공됨에 따라 현대정유는 저유소 인근 대불공업단지에 조성된 목포지역 및 광주를 포함한 전남지역의 유류제품 수요증가에 원활히 대처할 수 있게 됐고, 안정적인 적기 공급을 통해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이 지역의 시장 경쟁력확보와 임박한 석유시장의 대외개방에 따른 신속적인 대응으로 대외 경쟁력 향상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현대정유는 이번 목포 저유소를 완공함으로써 부산, 인천, 울산, 군산, 옥계 등 전국 주요 항구도시에 석유 물류망을 갖추게 됐으며, 총 저유량도 기존의 2백 77만배럴(원유를 제외한 석유제품 저장시설)에서 2백 96만배럴로 늘어나게 됐다.

### 한국수자원공사

#### 21세기 수자원 전망과 대책 토론회 수자원개발과 물문제 해결방안 모색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7월 10일 대전유성호텔 국제회의실에서 건설교통부 출입기자를 초청하여 "21세기 우리나라의 수자원전망과 대책"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또한 7월 11일에는 대청댐을 둘러 발전소와 취수시설 등 댐저수지를 견학하여 수자원사업의 필요성과 한국수자원공사가 하는 일을 언론인에게 적극적으로 이해시키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이번 행사는 국민적 여론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언론인들과 수자원개발의 필요성 및 물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으며,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언론의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 LG칼텍스정유(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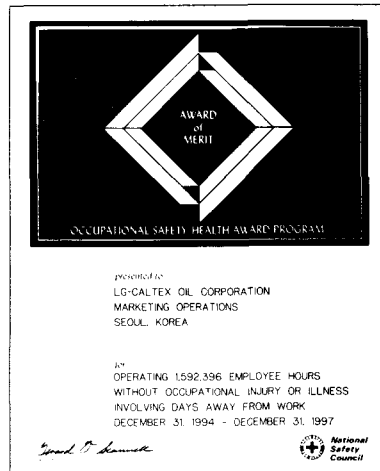
#### 美 안전협회 산업안전모범상 수상 만3년간 무재해 운영기록 달성

LG칼텍스정유는 운영중인 전국 모든 저유소와 유회유공장이 지난 94년 12월 31일부터 97년 12월 31일까지 만3년간에 걸쳐 단 한번의 사고도 없이 무재해 운영을 이룩해 오고 있는 것에 대해 세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미국안전협회(National Safety Council)로 부터 산업안전모범상(AWARD

OF MERIT)을 수상하였다.

LG칼텍스정유의 이번 수상은 석유제품을 유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수 있는 각종 상해, 폭발, 환경오염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하여 인적, 물적피해를 최소화했음은 물론 최고 품질의 제품을 최종수요처에 차질없이 적기에 공급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동안 정기적으로 각종 소방훈련, 방제훈련등을 실시하고 "자기기계설비 사랑운동", "혁신 21운동" 등의 캠페인을 통해 안전점검과 환경·안전의식 고취를 꾸준히 실천, 생활화해 온 결과이다.

또한 LG칼텍스정유는 미국안전협회가 주관하는 국제산업안전 콘테스트에서도 93년 1위를 차지한 이래 현재까지 저유운영부분 세계1위를 계속 유지해 오고 있다. 환경과 산업안전을 최우선의 경영이념으로 실천해 오고 있는 LG칼텍스정유는 이번 산업안전모범상 수상을 계기로 앞으로도 세계 최고의 무재해 사업장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LG칼텍스정유가 미국 안전 협회로부터 수여받은 산업안전 모범상장



## 효성중공업(주)

### 덴마크 VESTAS社 초청 세미나 개최 풍력발전 국산화 보급 기틀 마련

효성중공업은 지난 8월 4일 홀리데이 인 서울호텔에서 덴마크 VESTAS사 관계자들을 초청, 풍력발전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정부기관, 연구소, 학계, 산업체 등 30여개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풍력발전의 필요성」, 「풍력에너지의 계통연계 방안」, 「풍력발전의 연구개발 현황」 등의 주제 발표가 있었다.

특히 효성중공업은 이 시스템 제작에 참여한 덴마크 VESTAS사 관계자들을 세미나에 초청함에 따라 자체 제작한 풍력발전시스템 구축과 국내 풍력발전 국산화 보급의 기틀 마련에 크게 기여하였다.

한편 효성중공업의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풍력발전의 미래가 밝다는 것을 확신했으며, 지난 2월 제주 풍력발전시스템의 성공적 완료와 발전기 및 증속기등 기존에 보유한 요소기술을 기반으로 풍력발전의 국산화 보급을 위한 연구기관과의 공동개발 작업에 곧 착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현대에너지(주)

### 본격적인 민자발전 사업 착수 전남도와 부지대입 계약완료

현대에너지는 지난 7월 29일 전남도와 액화천연가스(LNG) 민자발전소 건설부지(울

촌공단) 5만평에 대한 대행개발 계약과 입주 분양 계약을 1백36억6천만원에 체결하고 본격적인 민자발전 건설 사업에 들어갔다.

이번 계약으로 현대에너지는 각종 인허가 등 발전소 건설을 위한 외부사업을 완료했고, 설계 및 시공사는 현대엔지니어링, 현대건설과 구매·시공계약을 맺고 8월부터 지반정리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현대에너지는 2001년 6월까지 16만kW급 2기의 가스터빈, 2002년 6월까지 18만kW급 1기의 스팀터빈등 50만kW 용량의 LNG 발전설비를 완공하고, 2002년 7월 준공 후 발전소를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 현대중공업(주)

### 국산 가스터빈 발전기 美 수출 국산화 기틀마련 수입대체 효과

현대중공업은 국내업체로는 처음으로 국산 가스터빈 발전기의 수출에 나섰다. 미국 지멘스-웨스팅하우스사로부터 2억달러에 수주한 발전용 가스터빈 12기중 3기(1백20MW)를 제작, 지난 9월 4일 울산 발전설비공장에서 선적했으며, 나머지 9기는 내년 2월부터 순차적으로 넘겨주기로 했다.

가스터빈은 고도의 정밀기술이 요구되는 핵심발전설비로 그동안 국내에서는 기술부족으로 전량수입에 의존해 왔다.

현대중공업은 발전설비사업에 본격 진출한 지 2년만에 자체 기술과 설비로 가스터빈 발전기를 제작, 세계적 발전설비업체인 지멘스-웨스팅하우스에 수출하는 개가를 올렸다.

한편 현대중공업은 '기계산업의 꽃'으로 불리는 가스터빈의 국산화 기틀을 다지게 돼 막대한 규모의 수입대체 효과를 올리게 되었다.

### 삼성엔지니어링(주)

#### 중 정유공장 건설 프로젝트 수주 3억달러규모 턴키방식 계약

삼성엔지니어링은 3억달러 규모의 중국석유정제 플랜트 건설 프로젝트를 턴키방식으로 수주했다.

삼성엔지니어링은 지난 8월 16일 중국 콩코드사가 발주한 석유정제 플랜트공사 국제 입찰에서 최종 시공자로 선정돼 정식계약을 체결했다.

이 공사는 중국 상하이에서 동남쪽으로 150km 떨어진 절강성 영파시에 연산 500만t 규모의 원유를 정제하는 시설을 건설하는 프로젝트이다.

삼성엔지니어링은 설계단계부터 구매 시공 시운전까지 일괄적으로 수행, 2000년말 완공할 계획이며, 공사를 발주한 중국의 콩코드사는 홍콩의 콩코드 퍼시픽사가 중국내 사업의 일환으로 100% 출자해 설립한 회사로 현재 400만m<sup>2</sup>규모의 정유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 회사는 1단계로 연산 500만t규모의 정유공장을 건설한 후 2단계로 종합석유정제단지 건설과 3단계로 300만t규모의 에틸렌공장건설(총투자금액 30억달러)을 각각 추진하고 있다.

삼성엔지니어링은 이번 1차공사 수주로 앞

으로 발주될 2차 다운스트림 공사 입찰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게 되었다.

###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 대체산업 창업지원 현지 설명회 7개 시·군 100여개 업체 참가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은 폐광지역진흥지구에서 대체산업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 관계자와 함께 대체산업 현지설명회를 개최하였다.

1, 2차로 나누어 실시된 이번 현지설명회는 6월 25일부터 6월 27일까지 충남 보령과 전남 화순에서, 6월 30일부터 7월 3일까지는 강원도 영월·정선·태백·도계, 경북 문경에서 열렸다.

7개 시·군에서 100여개 업체가 참석한 이번 설명회에서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은 용자업무에 대한 안내와 질문사항에 대해 상세히 답변을 하고 용자한도액 하향조정, 선금급 지급, 용자업무 취급기관 등 대체산업 육성계획 개정의 주요 취지를 설명하였다.

